

57 日本土木史 일본토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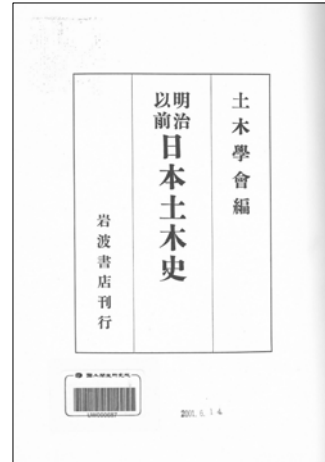
1권 1936년, 2권 1965년, 3권 1973년 / 토목학회 / 총 3권 5,500면 / 04,40-06 토35일

『日本土木史(일본토목사)』는 전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명치 이전 토목사, 즉 1911년 이전의 토목사인데 이 책은 1936년 6월에 초판이 나왔다. 이 작업을 위해 일본 토목학회에서는 1932년에 명치 이전 일본 토목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광범위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일본에는 『明治工業史(명치공업사)』 중에 ‘토목편(土木篇)’이란 기록이 있었을 따름인데 이 작업을 위해 구 영주(領主)와 지방의 권세가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다. 그러나 참고문헌을 보면 일본에는 토목에 관한 많은 방계기록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권은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 제1편 - 하천, 운하, 사방
- 제2편 - 개간, 간척, 매립, 관개, 배수
- 제3편 - 항만, 항로, 항로표지
- 제4편 - 도로, 교량, 관소(關所, 검문소)
- 제5편 - 도시 조영
- 제6편 - 성곽



제7편 - 수도

제8편 - 측량

제9편 - 토목 행정

제10편 - 시공법

이 책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수백 년 전의 하천 공사나 개간사업 등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특수공법이 많은데 이들 공법도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대단히 많다.

제2권은 1912~1940년까지의 기록이다. 이것은 1965년에 출간되었는데 특히 식민지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한 토목사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테면 조선의 하천사업, 항만수축, 조선의 간척, 조선의 도시계획과 지방계획, 조선의 도로 및 조선의 철도 등이 그것이다.

제3권은 1941년~1965년까지의 기록인데 1973년에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의 토목사업이 기록되어 있다.

『日本土木史』는 총 3권 5,500면의 방대한 자료인데 필자가 구입에 쓴 비용이 130만원에 이른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많은 기술자들을 초빙했다. 그들은 토목기술뿐만 아니라 토목행정과 토목교육제도도 그들 나라를 본떠 일본의 제반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명치 초기에는 유학 갔던 학생들이 돌아와 일본의 토목기술 발달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